

‘비판과 공존’의 시학으로서의 생태시 교육방법

오정훈*

<차 례>

- I. 생태적 사유의 존재 이유
- II. 생태주의의 시적 수용
- III. 생태시 교육의 실제
- IV. 마무리

I. 생태적 사유의 존재 이유

생태적 사유는 ‘인간’과 ‘이성’ 중심의 가치관 및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만 존재한다고 여겼던 기독교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고자 했던 서양의 이성 중심주의는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시작으로 인식 체계는 물론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고는 논리와 이성으로서 인간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인간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심층생태학(Deep Ecology)¹⁾은 현대 사회를 위기로 규정하면서 서구 문명의 본질을 이성의 자기 확대 과정으로 진단한다.

* 경상대교육학박사, 대아교 교사(vivasj@dreamwiz.com)

1) 심층생태학파는 달리 생태사회주의(Social Ecology)와 생태마르크스주의(Eco-marxism)는 환경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철학회(1998),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 예문서원, p.287.

감성과 이성의 분화, 자아와 타자의 대립을 당연시하는 이원론적 사고와 이성 중심의 합리적 태도는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양태를 니체는 ‘인간적으로 인식된 자연에 대한 해석일 뿐이며, 자연을 대상 세계로 다루는 오류’²⁾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성 중심주의와 자연에 대한 대상화는 인간과 자연을 미분화된 유기체로 인식하고자 하는 전일적(全一的)인 합일의 사고방식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자연은 인간과 분리되어 객체로 존재하는 물적(物的) 대상으로서, 인간을 위해 실용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계량(計量) 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칸트의 목적론적 자연 이해는 인간이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모든 자연의 합목적적 활동은 인간 문화 창달의 수단으로 규정된다.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도구화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으며, 합리적 이성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문명의 혜택 이면에 인간 소외라는 딜레마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생태주의는 인간의 자연 지배를 강화하는 이성 중심적 이원론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한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후설은 근원적인 생활 세계로의 귀환을 통해 정화된 자연적 태도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원초적인 세계(die primordiale Welt)’⁵⁾로 회귀함으로써 전과학적인 직관의 세계인 근원적인 생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념 이전의 상태, 이론과 이성 이전의 직관의 세계인 자연의 공간으로 인간이 돌아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이성의 제한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현대 과학문명이 안겨다 주는 폐해에서 벗어날 수

2) 근대의 자연과학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니체는 인간 중심적 사유를 해체하면서 ‘큰 이성’으로서의 ‘몸 이성’에 의해 생명력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정현(2006),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p.309.

3) 홍경실(2005), 『베르그손의 철학』, 인간사랑, p.265.

4) 김진(1998), 『칸트와 생태주의적 사유』, 울산대학교출판부, p.33.

5) 후설은 생활 세계를 자연으로서의 세계와 문화 세계로 보고, 원초적인 세계는 전개념적인 지각과 기억의 세계, 직관의 세계인 자연으로서의 세계에 해당한다. 한국현상학회(1998), 『자연의 현상학』, 철학과현실사, p.39-63.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를 개체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생태주의적 관점⁶⁾에 따르면, ‘자연’은 더 이상 인간과 차별화된 물적 대상일 수는 없다. 하이데거는 자연, 즉 ‘퓌지스(Physis)’의 시원적 의미를 ‘스스로 피어남(Aus-sich-her-aufgehen)’⁷⁾ 혹은 ‘자발적으로(von sich aus das)’⁸⁾ 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 이전에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는 이에서 나아가 자연 존재자의 존재는 인간과는 무관하게 홀로 생기지 않고, 자연의 인간에 대한 요구에 인간이 올바른 방식으로 응대⁹⁾할 때 성립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자연으로의 복귀’를 호소한 루소도 인간의 자연 지향성이 이성 중심 이전의 인간 본성을 회복할¹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의 부조리는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에머슨의 ‘자연 속에서의 환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안에 있는 것’¹¹⁾이라는 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동양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서양보다 더욱 생태주의에 근접한다. 동양의 인식론은 그 본바탕이 서양과는 달리, 주체와 객체는 실체가 아닌 기(氣)가 응집된 존재이기에 둘 사이의 감응(感應)에 의해 대상을 느낄 수 있다¹²⁾는 태도에 있다. 주희는 세상이 천지와 만물, 사람으로 구성되었다고

6) 김옥동(1998),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p.28.

7) M. Heidegger, *Parmenides*. Gesamtausgabe Bd. 54, Frankfurt a.M. 1982, pp.206-207.

8) M. Heidegger, *Hölderlins Hymne "Der Ister"*, Gesamtausgabe Bd. 53, Frankfurt a.M. 1984, p.140.

9) 하이데거는 자연 존재와 인간의 긍정적인 대응방식을 ‘초연함(Gelassenheit)’으로 명명하고, 인간이 자연에 응해 그 ‘사태 안으로 들어감(sich einlassen)’과 동시에 그 사태로부터 인간 자신을 ‘해방시키는(sich loslassen)’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하이데거학회(2001), 『하이데거 철학과 동양사상』, 민음사, p.150.

10) 박호성(2009), 『루소 사상의 이해』, 인간사랑, p.99.

11) 플라톤 외, 아서 미·J. A. 해머튼 엮음, 정명진 옮김(2009), 『철학, 인간을 읽다』, 부클북스, p.307.

보고, 생명이나 정신만이 아니라 현상이나 물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자연적’인 영역과 ‘비자연적’인 영역의 구분을 허락하지 않았다.¹³⁾ 서양의 기계론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일여적(一如的)인 것으로 보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시간적인 생성과 변화의 과정 자체로 파악한 것이다. 주희의 가치관으로 보면 ‘자연’과 ‘인간’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한몸이다. ‘천지와 내가 같은 몸이고, 만물과 내가 같은 기운이니 내 몸을 돌이켜 천지의 도를 살펴본다.’¹⁴⁾고 한 기대승의 견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왕양명의 태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간과 천지만물 사이의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맺음을 ‘일기(一氣)의 유통(流通)과 감응(感應)’¹⁵⁾으로 파악한다. 인간과 자연의 고립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 둘의 상호작용과 간섭으로 인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적극성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자연성은 인간과 역사의 모든 생성과 문화의 흥망성쇠를 지시하는 삶의 본체로서 심(心)과 물(物)을 아우르는 기적(氣的) 존재로 보았다. 자연은 스스로를 출현시키는 기의 작용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머물러 정체됨 없이 ‘스스로 그러함(機自爾)’¹⁶⁾의 자연스러운 순리로서 존재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물론, 주자의 이(理) 철학에 따르면, ‘자연의 다른 이름인 천(天)은 이(理)로서 개별 사물 속에 내재한다.’¹⁷⁾고 함으로써, 자연을 이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존재의 발현을 위한 작동 방식인 기로 보든,

12) 김희정(2008),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궁리, p.120.

13) 김영식(2006),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p.532.

14) 『고봉집』, 『속집』, 권2, 「理解」, ‘天地與吾同體 萬物與吾同氣 反身以觀天地之道 亦可知矣’

15) 김세정(2008), 『왕양명의 생명철학』, 청계, p.182. 『傳習錄』(下), 『黃省曾錄』, 274조목, ‘蓋天地萬物與人原是一體 只爲同此一氣 故能相通耳(천지만물과 사람은 본래 한몸이니, 일기(一氣)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다.’

16) 김형호(2004),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청계, pp.279-280.

17) 천지(天地)가 생기기 전에도 이(理)가 있었다고 하는 초월적(超越的) 이(理)와, 개별 사물 속의 이(理)로 내재하면서 기(氣)와 작용을 하는 내재적(內在的) 이(理)의 이중구조를 갖는다. 상허안병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1998),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아세아문화사, p.7.

만물에 내재된 근본 원리인 이로 보든, 자연을 이와 기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이와 기를 서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하나로 인식하고자 하는 일원론적 관점이라면, 물질에 편승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위자연을 언급한 동양의 대표적인 자연친화론자인 노자는 ‘사람은 땅을 법 삼고 땅은 하늘을 법 삼으며, 하늘은 도를 법 삼고 도는 자연을 법 삼는다.’¹⁸⁾는 논리를 통해 자연 만물을 인간의 본질이자 이치이며 이상으로 여겼다. 이처럼 존재의 근원적인 본질을 배태(胚胎)하고 원리로서의 속성을 가진 것이, 동양철학에서 중시하는 도(道)의 개념이다. 도는 자연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자연을 자연답게 기르는 우주 창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자는 이점에 주목해 도를 일체의 존재와 힘의 근원으로서 천지만물을 움직이고 존재하는 힘¹⁹⁾으로 보았다.

자연을 닮은 도는 인위적이지도 작위적이지도 않다는 측면에서 무위(無爲)의 가치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기계론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반면, 도는 ‘천도무친(天道無親)’²⁰⁾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원리이자 만물 창출의 근원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무불위(無不爲)’의 성향을 지녔기에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도 사상이 의미하는 ‘없음이지만 있음(無而有)’이고,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不動而動)’²¹⁾이라는 관념은, 이분법적 사고로 사물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18)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조기영(2005), 『한국사가의 자연관』, 북스힐, p.210.

19) 『莊子』, 「大宗師篇」, ‘夫道 … 無爲無形 … 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 生天生地 道는 형체가 없고 위함이 없으며, 자기가 뿌리이고 자기가 근본이고,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있어왔으며, 천지를 낳는 것이 도이다.’

20) 한국불교환경교육원(1997),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pp.85-86.

21) 김영석(2000), 『도와 생태적 상상력』, 국학자료원, p.20.

II. 생태주의의 시적 수용

인간 이성중심의 사고로부터 잉태된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현대문명의 효용성과 부조리라는 아누스적 양면성으로 삶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생태주의적 사고방식은 동서양에서 다양한 철학적 모색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문학적 차원으로까지 전이되어 현대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생태적 관점은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에 대한 집착과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편향성을 비판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고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비판’과 ‘공존’이라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식은 생태주의에서 표방하는 핵심적 쟁점이며, 그러한 철학적 인식을 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생태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생태시의 의의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생태시 읽기를 위해 주목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1. 생태시의 교육적 가치

생태학적 관점을 문학에 적용시키고자 한 문학생태학(literary ecology)과 생태비평(ecocritism)은 텍스트 밖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실은 물론 생태계의 자연과학적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²²⁾ 개별 생명 유기체와 환경을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고, 자연 환경을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유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생태주의적 사고가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생태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유기체를 상호 관계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며,²³⁾ 현대 사회

22) 홍문표(2003), 「기독교와 생태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21.

의 제반 문제를 공존과 공생의 입장에서 해명해 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생태시는 ‘자연 파괴와 생태계 문제를 드러내며 나아가 문명의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을 시적으로 토로한 것’²⁴⁾으로 정의된다. 생태시의 출발은 이처럼 ‘저항으로서의 언어(das Wort als Widerstand)’²⁵⁾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문명을 인간과 자연의 위기로 인식하고 계몽주의적 진보 이념과 성장을 인간의 자기 파괴로 진단하고자 한다. 하지만 생태시는 1970년대 이후의 일반적인 현실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 일련의 저항시 부류와는 형태상의 차이를 보임²⁶⁾과 동시에, 그 기저에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깨달음이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자연 훼손과 그로 인한 현실 파괴라는 비판적 메시지의 전달과 함께, 생명의 진정성에 대한 근원적 의문의 제기과 삶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생태시는 현실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시적 형상화를 통해 ‘평등과 사랑, 자율적인 질서와 조화, 상호협동 등의 아나키즘적 가치를 표상’²⁷⁾하는 차원으로 나아감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생태시는 ‘우주적 자연 질서와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적 유대’라는 주제 의식의 형상화를 통해 인간의 자기반성과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3) 신덕룡(2001), 『초록 생명의 길Ⅱ』, 시와사람, pp.30-33.

24) 생태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자연시’라는 용어가 있으나, 자연시는 소재를 중심으로 한 분류로서, 단순히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을 강하게 포섭하고 있는 ‘생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김용만(2003), 『생태문학』, 책세상, pp.98-99. 김주연(1984), 「괴테의 자연시 연구」, 괴테연구 제1권 1호, 한국괴테학회, p.292.

25) 1981년 독일 문학권에서 시작된 생태시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통적 자연시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자연 파괴 현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상안(2003), 「독일의 생태시」, 인문논총 제16호, 경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356.

26) 생경한 이념적 문구의 제시에서 벗어나 참신한 문학적 비유를 시도하며, 고도의 함축성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항시와는 구별된다. 김종훈(2009), 「독일 생태시와 김지하의 생태시」, 비교한국학 제17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61.

27) 정우택(2007), 「황석우의 자연시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3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pp.306-307.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공존을 위한 대안적 의의를 갖는 생태시를 교육 현장으로 들여올 경우, 학생들은 비판적 안목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생태시 교육을 통해 ‘생태학적 인식’²⁸⁾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얻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며, 비판과 성찰의 결과 바람직한 삶의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생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한 생태시를 교육 하려는 시도는, 무엇보다 생태시가 문학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생태주의가 문학 특히, 시를 경유한 결과가 생태시라는 사실은, 생태시가 단순히 생태학적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달 매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시 교육에서는 ‘인식’의 문제와 함께 생태시 자체의 독자적인 문학적 속성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어떤 소재와 문학적 장치에 의해 형상화되며, 그러한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학적 정서와 감동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공존을 지향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발현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독자로서의 학생들이 느끼는 바람직한 내면화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태시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살피고 그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천착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안목을 키워주며, 이러한 비판적 고찰이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문제해결 전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실천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생태시를 통해 표출되는 생태적 인식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자연과 현실을 소재로 한 생태시가 비판적 견해와 공존의 작가 의식을 어떤 시적 장치로 형상화해 내는지에 대한 미감(美感)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8) 김성란(2007), 「교과서에 나타난 생태시 고찰」, 새국어교육 제7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77.

2. 현실 비판으로서의 시학

생태시의 출발은 현실 수용보다는 비판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 물질적 존재이기에,²⁹⁾ 인간의 마음 작용에는 물질적 존재로서의 욕구가 개입되게 마련이다. 생태시는 인간 사회의 물질에 대한 편향성과 그로 인해 유발된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적 병폐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심(無心)하고 무정(無情)한³⁰⁾ 자연은 그로 인해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고 그 자체로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존재이다. 하지만 욕망을 가진 존재인 유심(有心)하고 유정(有情)한 인간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연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 왔다. 이러한 인간 문명의 부정적인 속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간 인식의 한계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생태시 창작의 물고를 튼 독일의 생태시의 핵심적 쟁점은,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던 계몽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인간을 자연적인 존재로 간주하면서 자연문학(Naturpoesie)을 옹호’³¹⁾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성중심의 합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자연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투영하는 정신화된 존재로 보고자 하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생태시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훼손에 먼저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상 독일과 미국의 생태시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이 생

29)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만물을 초월하고 만물을 향유하는 존재이며, 인간 영명(靈明)과 만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만물이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은 만물을 자신의 삶을 위해 향유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다. 박무영(2002),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pp.44-49.

30) 무심(無心)과 무정(無情)은 욕심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주의 근본적 속성인 무극(無極)과 통하는 것이다. 정효구(2007), 『한국 현대시와 平人의 사상』, 푸른사상사, p.91.

31) 제여매(2006), 「독일 현대 자연시」, 독어교육 제35집, 한국독어독문학회교육학회, pp.405-409.

태시를 바라보는 이론가들의 공통된 견해³²⁾이다.

생태시에 드러나는 자연은 일차적으로 인간과 화합하지 못하고 인간에 의해 본래의 순수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연의 고유한 자질이 인간에 의해 탈색되고,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로 인해 인간에 의한 자연 소외는 물론, 인간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자연 파괴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이 모순적 속성을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체계의 전환을 요구한다. 자연을 소재로 한 전통적인 서정시에서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미감을 얻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정서적 위안과 만족감을 토로하는³³⁾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의 고전시가에서도 자연은 현실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덜어내고 본래의 깨끗함을 회복하게 해 주는 공간으로³⁴⁾ 인식되었다.

현대사회 이전의 자연은 이처럼 낭만과 향수가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세속적 현실과는 달리 이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었다. 아울러 작위적인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의 순수하고 무작위한 상태를 동경하고자 했던 것은 도학 탐구의 대상이기도³⁵⁾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자연은 부조리한 현실과는 변별되는 공간으로서 인간 삶의 근본 질서를 안내하고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전우주를 포괄할 수 있는 이치를 함축한 실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생태시에서는 인간의 현실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자연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음을 명확히 보이고자 한다.

생태시의 창작과 감상이 산출해 내는 담론적 측면에서 보면, 자연 자체가 탐구대상이 되기보다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들을 논평하기 위한

32) 최동호(2010), 「미국의 생태문학 연구」, 인문학연구 제79호, 충남대학교인문학연구소, p.92.

33) 배다니엘(2003), 「려악 자연시의 풍격 특성」, 중국학보 제47호, 한국중국학회, p.366.

34) 유옥래(2009), 「정극인의 시가에 드러난 자연시 연구」, 고시가연구 제24호, 한국고시개문학회, pp.6-7.

35) 신연우(2003), 「이황 산수시에서 경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28호,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pp.38-49.

수단으로서³⁶⁾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 요청된다. 생태시에서 자연을 소제화하는 방식은 향토의 자연을 삶의 애환을 해소시키기 위한 치유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³⁷⁾ 인간 중심적 삶의 철학 속에서 지배되고 변형되는 자연의 실태를 조명하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자연은 동경이나 동일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자아로 통합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³⁸⁾ 둔 채 존재할 뿐이다. 자연을 철저히 결핍의 이미지로 처리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서려있는 내재적 모순의 극단을 보여주고자 한다.

생태시는 자연 자체에 대한 조망뿐만 아니라, 비생태주의적 인식으로 인해 빚어지는 인간 자체에 대한 소외와 차별화도 동시에 비판하고자 한다.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만연시켰으며, 이러한 태도는 과학의 발전, 산업화, 자본의 축적과 맞물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넘어서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특히 생태주의의 한 부류에 해당하는 생태사회주의와 생태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현대의 생태문제는 인간의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³⁹⁾ 진단한다. 결국, 인간 중심적 사고는 특정 계급과 기득권층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됨으로써 대다수 민중의 고립과 소외를 방조하면서 비인간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또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속으로 함몰되어 감에 따라, 인간의 복지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자연 파괴와 자원의 낭비,⁴⁰⁾ 그리고 인간의 물신화와 기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미 물질적 가치를 평

36) 신재삼(2003), 「프로스트의 자연시와 전략적 후퇴」, 현대영미시연구 제9권 1호, 한국현대영미시학회, p.99.

37) 진순애(2003), 『현대시의 자연과 모더니티』, 새미, p.25.

38) 금동철(2007), 「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민족어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p.502.

39) 정연정(2011),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210.

40) 박정근(2010), 「독일 생태 시인과 박영근 생태시 비교」, 한민족문화연구 제35집, 한민족문화학회, p.113.

가의 척도로 인식한 현대사회에서 참된 인간성은 부의 소유 여부에 의해 평가되고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물질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생태시는 이러한 서열화된 인간구조와 인간 소외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적 가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감성과 정서가 결핍된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물질적 가치의 추구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착취라는 비인간적 구조를 당연시하는 현대사회의 의식구조를 극복하고 참다운 인권을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3. 공존(共存)으로서의 시학

생태시는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존의 가치를 지향한다. 자연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인간 스스로 자행하는 소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존과 상생의 대안 제시를 통해 현실적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원화되고 물신화된 의식 구조에 대한 개혁을 주창(主唱)하면서 일원화된 순환적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대상과 자아, 자연과 인간을 철저하게 타자와 주체로 인식하는 분별적이고 개체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개별 사물과 대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라는 태도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 감성과 이성, 그리고 나아가 인간 상호간의 진정한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자연에서 왔지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문명사회의 인공물이 처한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시는, ‘세속의 모든 조건, 형식과 억압을 극복한 상태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우고 우주의 흐름에 겹쳐히 합류’⁴¹⁾할 수 있는 자유(自由)로서의

41) 정효구(1998), 『한국현대시와 자연탐구』, 새미, pp.73-156.

소요유(逍遙遊)에 대한 체험을 시적으로 형상화한다. 생태학에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생명을 영속시키는 기반⁴²⁾이기에, 생태시학은 시어의 배열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생태시에서는 공존의 가치를 구현해 내기 위해, 건강한 생명을 원시적 삶으로의 회귀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원시생명주의를⁴³⁾ 표방하며, 이를 위해 혼돈과 미분화의 공간인 순수로서의 자연을 묘사하고자 한다.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서만 인식됨으로써 철저히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낭만이 충만한 공간이자 미적 가치를 드러내는 곳으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연에 대한 한결같은 동경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며, 아울러 자연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간의 허욕과 부자유 상태에서 벗어나고자⁴⁴⁾ 하는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생명력이 약동하고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과 순리가 존재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모습에 관심을 갖고 이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입장은, 훼손되기 이전의 자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시인의 바람이며, 근대 이전의 자연 친화력을⁴⁵⁾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상생만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 이전의 시인들이 자연을 소재로 아름다운 자연에 몰입함으로써 상상력을 통해 속세를 벗어난 초현실적 경지를 표현하는⁴⁶⁾ 한편, 그와는 상반되게 입신양명(立身養命)과 치인(治人)을 이루기 위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집념을⁴⁷⁾ 병치시켰던 것과 같이, 공존으로서

42)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ed, *Deep Ecology*, Salt Lake City : Gibbs M. Smith Inc, 1985, pp.66-70.

43) 전미정(2005), 「서정주와 박두진의 생태시 비교 연구」, 비교문학 제37호, 한국비교문학회, p.200.

44) 김종호(2011), 『물, 바람, 빛의 시학』, 북스힐, p.102.

45) 김효중(2005), 「박두진의 생태시와 기독교사상」, 비교문학 제37호, 한국비교문학회, p.219.

46) 이영남(2009), 「다산과 청대문인 왕사정의 자연시 비교」, 청람어문교육 제39호, 청람어문교육학회, p.445.

47) 김성기(2000), 「면양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제10호,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p.13.

의 자연을 염두에 두는 생태시는 인간적 삶 속에서의 자연, 자연 속에서의 인간적 삶을 갈구하고자 한다.

생태시에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쟁점화하고자 하는 두 번째 요소는 감성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부터 벗어나 이성중심의 계몽주의적 사유체제로의 전환에서 빚어진 현대사회의 위기를 감성과 정서의 회복을 통해 치유하자는 것이다. 논리적 이성이 물질문명의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것이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실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이상의 성취인지를 되묻고 그 대안으로서 감성의 도래를 주창한다. 이를 위해 생태시는 자연물을 빌려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투영시킴으로써⁴⁸⁾ 정서적 영역을 전면화시키하고자 한다.

하지만 생태시는 이성 편향적인 삶의 방식의 철회를 주장할 뿐이지, 감성 일방적인 태도의 견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과 감성의 공존과 조화를 통해 이성과 감성이 미분화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감성과 더불어 이성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속성⁴⁹⁾ 중의 하나라는 전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성의 토대 위에 현실적 인간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태시는 자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감흥을 유도하며 이로써 자연 속으로의 인간 자아의 몰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성은 인간의 의지대로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절제 속에서 존재하게 되며,⁵⁰⁾ 나아가 인간 이성은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정서적 공존감을 획득하게 된다.

공존과 관련된 생태시의 마지막 입장은 현실 속에서 이상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배타성을 반성하고 자연 속에서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생태시의 핵심적 가치는 현실에 대한 전적인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인간적인 삶의 현장을 위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기에,⁵¹⁾ 생명사상은 궁극적으로 휴머니

48) 송영순(2005), 『현대시와 노장사상』, 푸른사상사, p.37.

49) 이은봉(2000),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pp.57-65.

50) 황인원(2002), 『한국 서정시와 자연의식』, 다운샘, p.49.

즘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유학에서도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늘, 땅, 사람(天地人三才)으로 보고, 사람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면서도 사람의 길(人道) 즉, 역사와 문화를 열어가야 할 주체로 인식한다.⁵²⁾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이 현실적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부정하지 않듯이, 생태시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현실적 삶을 옹호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시도하려 한다. 생태시에서 ‘자연에 감응하면서 생명과 소통’하는 것을 인간이 추구해야할 가치로 설정하는 것은,⁵³⁾ 자연의 일부로서 그 속에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과 주체적 독자성을 지닌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III. 생태시 교육의 실제

비판과 공존의 미학을 반영한 생태시는 학생들로 하여금 시문학에 대한 감상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시를 통해 촉발되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실적 문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생태시를 매개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생태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존의 관점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읽기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비판적 읽기는 생태시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상에 대해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안적 읽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함몰되어 자기 주장의 설득력이 결여되어 사태에 대한 단순한 불평이나 불만의 토로에 그치

51) 송희복(2000), 『시와 문화의 텍스트 상관성』, 월인, p.313.

52) 유승우(2005), 『몸의 시학』, 새문사, p.111.

53) 이동순(2010), 『숲의 정신』, 산지니, p.158.

지 않고, 긍정적 해결 방안을 탐색하게끔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생태시는 자연을 통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나아가 인간 스스로 자행하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비판적 읽기 단계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비판을 위한 출발점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의 행태를 비판하고, 인간을 매개로 인간 소외 문제를 천착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보고자 한다. 대안적 읽기 단계에서는 생태시에 전제된 공존의 가치를 학생들이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이성중심 사회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고자 한다.

1. ‘자연’을 매개로 한 비판적 읽기

생태시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자연이다. 현실적 자연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인식이 자기 반성과 성찰과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혁을 위한 비판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염되고 훼손된 자연을 소재화한 생태시를 먼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작품을 학생 개별적으로 감상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생태시 교육은 시작된다. 그런 후, 현실 세계를 학생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 속에 드러난 실상과 현실세계의 실태를 견주어 보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절차는 ‘작품 제시→개별 감상→현실 조망→비판적 성찰→모둠 토의’의 순서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김기택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을 제시하고 자연을 매개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보고자 한다.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

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뚫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쇧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썬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 수만 년 썬지 않을 금속의 씨를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행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 전문

「바퀴벌레는 진화 중」은 자연을 매개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필 수 있는 생태시다. ‘바퀴벌레’는 자연을 대표하는 ‘생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대상으로서, ‘시멘트’와 ‘살충제’라는 외적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그 생명성이 퇴화되고 급기야 자연성이 소멸되어 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일련의 부정적 퇴화 양상을 반어적인 시어를 통해 비판하고자 한다. ‘흙, 나무, 내, 강’이라는 순수한 자연성 속에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벌레’로서의 ‘바퀴벌레’는 ‘쇧덩이 근육, 강철의 살결’을 가진 대상으로 진화해 가며, ‘시멘트’와 ‘살충제’를 소화시키는 물론, ‘철판’을 ‘소화’시키고 ‘중금속 폐기물’을 원활하게 ‘배설’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작가는 원활한 생명 활동을 드러내는 ‘벌레’를 ‘비대’한 대상으로 보고, 오히려 순수성과 자연성을 상실한 ‘로봇’의 속성을 지닌 ‘신행 바퀴벌레’를 ‘진화’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설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비정상적인 변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작가의식을 반영

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매개로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는 교육이기에, 생태시에서 현실적 자연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시켰는지에 대해 주목하게 하고 그러한 작품을 충분히 향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에만 제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시 속에 드러난 모습을 찾아보고, 그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품과 현실을 동시에 살피는 통합적 교육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작품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생태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비판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퇴색될 수 있으며, 현실에만 주목하고 비판적 태도만을 견지할 경우 생태시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는 문학교육의 속성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먼저 개별 감상 단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시된 작품을 자유롭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하되, 특별히 학생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교사가 언급하도록 한다. 사실상 시 감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내면화이다. 학생 스스로 작품 속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를 찾아내고 그를 토대로 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읽기의 과정이다. 하지만 작품에서 다루는 소재나 주제의 생경함이나 표현기법의 생소함, 실험적인 작가 의도의 표출로 인한 시어나 구조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선뜻 어떤 요소에 주목해서 어떻게 작품을 읽어나가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는 적절한 감상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작품 읽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퀴벌레는 진화 중」에서는 핵심적인 묘사 ‘대상’과 그 대상의 진행과정에 대한 것들을 살피게 해야 하며, 대상을 둘러싼 외적 내적 상황에 대한 구

체적인 성찰,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함축하는 ‘속성’과 그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것들도 면밀하게 따져보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이러한 읽기 요소에 대한 제시가 학생들의 자발적 읽기가 행해진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어떤 단서의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학생 자신의 문학적 배경지식과 읽기 방법만으로 작품을 대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전제된 후에, 좀더 심화된 읽기를 위해 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자연을 매개로 한 비판적 현실 인식

분류항목	과거	현재	미래
	집 짓기 전/독 뿌리기 전	보이지 않는 병하기	때가 이롭
대 상	사람, 생물, 벌레, 씨	저것(바퀴벌레)	로봇, 철관 두른 벌레 신형 바퀴벌레
외적 상황	흙, 나무, 내, 강, 물	시멘트, 살충제, 독약 압회색 스모그, 폐수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내적 상황	먼지, 수분, 살덩이, 혈관, 똥	췌덩이 근육, 민첩성 기 동력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 결, 철관 소화, 중금속 폐 기물 배설
속 성	비대	진화	진화
상징적 의미	생명성, 순수성, 자연성	회고 맑고 깨끗함 (숨 쉴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함)	생명성의 퇴화, 소멸

그러므로 개별 감상 단계는 ‘학생 혼자 읽기’와 ‘교사 참여적 읽기’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혼자 읽었을 때와 교사가 읽기 요소를 제시한 뒤에 읽었을 때의 차이와 변화에 대해 살피게 하고, 그에 대해 학생과 교사 상호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어야 한다. 읽기에 대한 자기점검과, 교사 조언 후의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깊이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시 읽기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터득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졌다면, 다음으로 작품과 연계된 현실 세계를 조망하고 비판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시 속에 형상화된 주제의식이 작품 세계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현실 세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재, 주제, 상황, 속성과 유사성을 가진 현실을 살피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방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파괴되고 소외되어가는 자연의 실체를 느끼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과 현실을 통해 학생들이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학생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고 다듬어 감으로써 자연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확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인간’을 매개로 한 비판적 읽기

생태사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인간 소외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생태시는 자연에 대한 비판적 견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소외와 갈등의 문제도 중요한 주제의식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잉태시켰으며, 자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을 위한 자본의 양산과 축적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도 자본 소유의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자본을 소유한 지배계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당한 현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태적 관점을 수용한 생태시는, 자본을 중핵적 가치로 보고 그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인간을 차별화하는 기존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미적 형상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 소외를 당연시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고수하며,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인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시의 교육적 수용은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학적 가치를 지닌 생태시를 향유하면서, 인간 소외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인간을 완전한 하나의 동등한 동일체로 인식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작품 읽기 → 이미지 분석 → 이미지 통합 → 사고 확장’의 과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반이 깎여 나간 산의 반쪽엔
키 작은 나무들만 남아 있었다

부르도자가 남은 산의 반쪽을 뭉개려고
무쇠턱을 들고 다가가고
돌과 흙더미를 옮기는 인부들도 보였다

그때 푸른 잔디 아름다운 숲 속에선
평화롭게 골프 치는 사람들
그들은 골프공을 움직이는 힘으로도
거뜰하게 산을 옮기고
해안선을 움직여 지도를 바꿔놓는다
산골짜기 마을을 한꺼번에 인공호수로 덮어버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
누군가의 작은 실수로
엄청난 초능력을 얻게 된 그들을

—최승호, 「부르도자 부르조아」, 전문

최승호의 「부르도자 부르조아」는 기계문명으로 상징되는 ‘부르도자, 무쇠턱’으로 인해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산’으로 표상되는 자연이 ‘뭉개’지고 ‘옮겨’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인위적인 개발과 산업화는 ‘지도를 바꿔놓’을 정도로 막강한 힘으로 작용한다. 급기야 자연은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서 ‘반이 깎여 나간 산’의 나머지만 저도 인간의 편익과 안락을 위해 희생되고야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

이다. 위 시는 이러한 자연의 파괴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인간 소외의 문제까지도 조망하고자 한다.

‘부르조아’에 의해 움직이고 그들의 가치를 대변하는 ‘부르도자’의 ‘무쇠턱’은 자연 훼손을 넘어서 ‘산골짜기 마을’을 ‘인공호수’로 ‘덮어버’림으로써 오로지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지배계층과 자본을 소유한 특권층의 욕망에만 부응할 뿐이다. 이처럼 ‘돌과 흙더미’를 몸소 ‘옮기는’ ‘인부’들의 힘겨운 현실적 고뇌를 외면당한 채 그들의 삶의 기반인 ‘산골짜기 마을’마저도 ‘부르조아’의 향락을 위해 빼앗겨야만 하는 것이 피지배층이 처한 현실적 상황인 것이다. 작가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에 의한 착취와 억압만이 아니라, ‘골프공을 움직이는’ 미미한 ‘힘’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는 특권층의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무감각함이다. 자본의 힘으로 ‘엄청난 초능력’의 소유자가 된 ‘그들’이 누리는 삶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존재가치는 조물주의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가의 인식이다.

작품 감상은 먼저 학생들의 자발적인 작품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사전 간섭이나 단서 제공과 같이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먼저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학의 이해와 감상은 개별 독자의 경험과 정서, 삶의 체험 방식 등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기에 학생 나름대로의 독법에 따라 충분히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작품 읽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미지 분석과 이미지 통합’ 단계는 주안점을 두어야 할 항목을 학생들에게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심도 깊은 이해와 감상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개별 읽기 이후에 학생들이 작품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발표하게 하고, 그를 바탕으로 상호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작품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미지 분석을 통해 유사성과 차별성을 지닌 이미지들을 나누고 분류함으로써 작품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게 할 필요가 있다.⁵⁴⁾ 개별 작품 읽기가 작품을 하나의 전체 이미지로 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라

면, ‘이미지 분석’은 학생들이 사전에 읽고 이야기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의 다양한 이미지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재구조화하고 조직화해 보는 작업에 해당한다.

<표 2> 인간을 매개로 한 비판적 현실 인식

비판의 쟁점		자연의 변화와 파괴		인간의 차별화와 소외	
갈등 유발의 매개		부르도자, 무쇠턱		부르조아	
이미지 분석	시적구조의 이원화와 대립성 (이미지 분석)	푸른잔디 이름다운 숲 해안선 산골마을 키 작은 나무 반 깎인 산	지도 바꿈 인공호수 몽갸, 움김	인부 (산골짜기 마을)	골프치는 사람, 골프공 움직이는 힘, 엄청난 초능력, 그들
이미지 통합	상징적 의미	순수 자연의 존재	자연의 부재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생태적 인식	순수성, 자연성 푸름, 아름다움	실수, 비평화	인간에, 평화	실수, 비평화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이미지로 이원화되어 전개되는 시상의 전개방식을 학생들이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푸른 잔디, 아름다운 숲, 해안선, 산골마을, 키 작은 나무, 반 깎인 산’의 순수 자연성의 이미지와 ‘지도 바꿈, 인공호수, 몽갸, 움김’의 자연 부재의 이미지 분류를 통해 작품에 드러난 대립성을 재구조화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분석은, 자연성의 파괴가 인간의 차원으로 전이되어 인간을 ‘인부, 산골짜기 마을’과 ‘골프치는 사람, 엄청난 초능력, 그들, 부르조아’로 이원화시키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인간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계급화와 불평등 구조로 확장되어 감을 학생들이 느끼도록 함으로써 작품 속에 전제

54) 마르틴 줄리, 김동윤 옮김(1999), 『영상이미지 읽기』, 문예출판사, p.98. 유영호(2003),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p.65. 최영진(2007), 『이미지 읽기와 텍스트 읽기』, 영미문학교육 제11권 2호,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p.115.

된 비판적 태도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 통합 과정은 나누어 놓은 이미지를 결합시켜 그 속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도출해 내는 단계이다. 작품 속의 개별 이미지를 토대로 학생들의 사고와 정서에 따라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재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지 통합은 작품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자신의 의식 구조 속으로 작품을 내면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적 인식에 공감하고 그에 따라 ‘인간에’와 ‘순수성’의 회복이라는 이미지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부르주아 계층의 무정함’, ‘권력층의 폭력성과 비평화적 실체’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를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통합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 가치관 속에 새롭게 마련한 이미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작품과 관련된 직간접적 체험 활동과 상호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외 계층의 현실적 삶과 관련된 영상매체, 자료의 검색과 열람, 혹은 각종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작품에서 유발된 비판적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3. ‘공생(共生)’을 위한 대안적 읽기

생태시는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한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물론이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는 이원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그것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일원적 사고로의 복귀인 공존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식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생태시가 제시하고자 하는 공존의 가치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며, 자연과 인간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생태시에서 강조하는 ‘공생’의 가치에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단순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

적인 비판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기 위함이다. 현실의 문제점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관망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듯이, 비판을 뛰어넘어 이상적인 삶의 방향의 제시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 대안적 사고방식으로서의 ‘공생’의 가치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공존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직면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과정으로서의 대안적 읽기를 생태시를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생태 위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대안적 읽기는 ‘작품 읽기 → 대상의 재조망 → 사고체계의 전환 → 해결책에 대한 논의’의 과정으로 진행해 보았다.

고추밭을 걷어 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 올리려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들 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훑쳐보다가
나는 말라 가는 고춧대를 덮어 주고 돌아왔다

가을갈이를 하려고 밭에 다시 가 보니
호박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꽃들도 흙 속에 잦아든지 오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어느새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얹히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의 죽음을 덮고 있는
관 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나희덕, 「어떤 출토(出土)」, 전문

나희덕의 「어떤 출토」는 자연 대상을 재조망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동화되는 공생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적 모습을 ‘고추밭을 걷어 내’려는 행위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자연의 결실인 호박을 ‘뜻밖의 수확’으로 인식하는 모습, ‘가을갈이’의 대상으로 ‘밭’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을 일구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연은 단지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태도가 편협한 쪽으로 흐르거나 극에 달하게 되면 물질과 인간 중심적 사고로 고착화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호박을 단순한 자연의 부산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 대상물을 재고찰함으로써 호박에서 ‘젖’의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나아가 호박이 썩어 가면서 벌레를 살찌우는 자연의 순리를 ‘소신공양, 불꽃, 은밀한 의식’ 등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나의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박이 자기 분해를 통해 소멸해 가는 희생의 과정을 모성(母性)적 성향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희생 뒤에 따르는 호박의 소멸을 ‘종잇장, 죽음, 관 뚜껑’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삶과 죽음이라는 우주적 질서 속에서 공생해 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화자는 자연 대상물을 새로운 안목으로 관찰하고 그를 토대로 자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삶과 죽음의 순환적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에 공감하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고춧대를 덮어 주’는 모습과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결국 화자는 자연과 이질적이며 자연 위에서 군림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에 공감하고 동화됨으로써 공생의 가치를 추종하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공생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생태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학생들은 작품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주목하면서 스스로 읽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인 혼자 읽기를 통해 이해하고 감상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 재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식 전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의 재조망’은 생태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나 대상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사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전의 인간 중심적 가치관으로 ‘호박, 벌레, 고추밭, 죽음’을 대하는 관습적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대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사물이나 소재를 점검하고 살피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재인식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자연 대상의 발견’은 ‘사고 체계의 전환’과 해결방법의 모색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표 3> 인간의 자연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공존적 태도

자연을 대하는 인간 본위적 태도	자연의 재발견과 공존의식		
	자연 대상의 발견	자연의 가치 재인식	자연에 대한 공감
고추밭 건어 냄 뜻밖의 수확 가을같이	달디단 그녀의 젖 벌레들이 뽀	소신공양 불꽃 은밀한 의식	고춧대를 덮어 줌
	호박의 소멸 불꽃이 찾아들 젖을 비움	종잇장 죽음 관 뚜껑 둥근 사리들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림
	자연의 희생과 순환적 질서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동화		

‘사고 체계의 전환’ 단계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가치관에 다시 주목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새로운 안목으로 다시 살펴야겠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사물, 인식, 가치관들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문제점을 가진 사회적 현상이나 그것을 해

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상들에 관심을 갖고, 기존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인식 지평의 확대는 물론 사물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작품 속의 화자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대안적 사고의 일환으로 주목하고 있는 공생적 가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방식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단서가 된다.

새로운 시도와 접근으로 학생들이 관심 대상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얻었다면, 그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심화시키고 확충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것의 의미를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지라도, 다양한 해석과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대안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자신의 사고 과정을 다듬어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IV. 마무리

생태시는 비판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문학이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함으로써 빚어진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적 삶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재고(再考)를 촉구한다. 자연과 인간을 이원적으로 인식하고, 인간 우위의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자연 파괴 현상과 그러한 인식의 틀이 초래한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한 비판은 물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념적 인식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과 개선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처럼 ‘비판’과 ‘대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생태시를 시 교육현장에 도입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음은 물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삶의 방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게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현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인식 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식과 현실적 실천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행동과 실천의 움직임까지 유도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생태시를 매개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읽어 가는 방법과 대안적으로 읽고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 생태시에서 보여주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를 드러내고, 비판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이다.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 자본의 소유로 여유로움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특권층의 삶을 새로운 안목으로 재고찰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태시는 자아와 타자를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인식하는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통해, 현실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생태시의 이러한 속성에 주목하고, 학생들의 독자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그들만의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이 유효한 의미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대전제는, 생태시를 문학으로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적 체험을 바탕으로 생태시의 고유한 속성인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과 비판, 대안적 측면을 학생들과 공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 2. 24. 투고되었으며, 2012.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금동철(2007), “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민족어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p.502.
- 김성기(2000), “면양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제10호,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p.13.
- 김성란(2007), “교과서에 나타난 생태시 고찰”, 『새국어교육』 제7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77.
- 김세정(2008), 『왕양명의 생명철학』, 청계, p.182.
- 김영식(2000), 『도와 생태적 상상력』, 국학자료원, p.20.
- 김영식(2006),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p.532.
- 김용민(2003), 『생태문학』, 책세상, pp.98-99.
- 김옥동(1998),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p.28.
- 김정현(2006),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p.309.
- 김종호(2011), 『물, 바람, 빛의 시학』, 북스힐, p.102.
- 김종훈(2009), “독일 생태시와 김지하의 생태시”, 『비교한국학』 제17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61.
- 김주연(1984), “괴테의 자연시 연구”, 『괴테연구』 제1권 1호, 한국괴테학회, p.292.
- 김진(1998), 『칸트와 생태주의적 사유』, 울산대학교출판부, p.33.
- 김형효(2004),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청계, pp.279-280.
- 김효중(2005), “박두진의 생태시와 기독교사상”, 『비교문학』 제37호, 한국비교문학학회, p.219.
- 김희정(2008), 『몸·국가·우주 하나를 꿈꾸다』, 궁리, p.120.
- 박무영(2002),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pp.44-49.
- 박정근(2010), “독일 생태 시인과 박영근 생태시 비교”, 『한민족문화연구』 제35집, 한민족문화학회, p.113.
- 박호성(2009), 『루소 사상의 이해』, 인간사랑, p.99.
- 배다니엘(2003), “려야 자연시의 품격 특성”, 『중국학보』 제47호, 한국중국학회, p.366.
- 상허안병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1998), 『동양철학의 자연과 인간』, 아세아문화사, p.7.
- 송영순(2005), 『현대시와 노장사상』, 푸른사상사, p.37.
- 송희복(2000), 『시와 문화의 텍스트 상관성』, 월인, p.313.
- 신덕룡(2001), 『초록 생명의 길Ⅱ』, 시와사람, pp.30-33.
- 신연우(2003), “이항 산수시에서 경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제28호, 영남대학교민족

- 문화연구소, pp.38-49.
- 신재실(2003), “프로스트의 자연시와 전략적 후퇴”, 『현대영미시연구』 제9권 1호, 한국현대영미시학회, p.99.
- 유승우(2005), 『몸의 시학』, 새문사, p.111.
- 유영희(2003),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역락, p.65.
- 유육레(2009), “정극인의 시가에 드러난 자연시 연구”, 『고시가연구』 제24호, 한국고시기문학회, pp.6-7.
- 이동순(2010), 『숲의 정신』, 산지니, p.158.
- 이영남(2009), “다산과 청대문인 왕사정의 자연시 비교”, 『청람어문교육』 제39호, 청람어문교육학회, p.445.
- 이은봉(2000),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pp.57-65.
- 전미정(2005), “서정주와 박두진의 생태시 비교 연구”, 『비교문학』 제37호, 한국비교문학회, p.200.
- 정연정(2011),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210.
- 정우택(2007), “황석우의 자연시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3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pp.306-307.
- 정효구(1998), 『한국현대시와 자연탐구』, 새미, pp.73-156.
- 정효구(2007), 『한국 현대시화 平人의 사상』, 푸른사상사, p.91.
- 제여매(2006), “독일 현대 자연시”, 『독어교육』 제35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pp.405-409.
- 조기영(2005), 『한국시가의 자연관』, 북스힐, p.210.
- 중국철학회(1998), 『현대의 위기 동양철학의 모색』, 예문서원, p.287.
- 진순애(2003), 『현대시의 자연과 모더니티』, 새미, p.25.
- 최동오(2010), “미국의 생태문학 연구”, 『인문학연구』 제79호, 충남대학교인문학연구소, p.92.
- 최상안(2003), “독일의 생태시”, 『인문논총』 제16호, 경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356.
- 최영진(2007), “이미지 읽기와 텍스트 읽기”, 『영미문학교육』 제11권 2호,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p.115.
- 한국불교환경교육원(1997),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모색, pp.85-86.
- 한국하이테크학회(2001), 『하이테크 철학과 동양사상』, 민음사, p.150.
- 한국현상학회(1998), 『자연의 현상학』, 철학과현실사, pp.39-63.
- 홍경실(2005), 『베르그손의 철학』, 인간사랑, p.265.
- 홍문표(2003), “기독교와 생태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21.

황인원(2002), 『한국 서정시와 자연의식』, 다운샘, p.49.

『고봉집』, 「속집」, 권2.

『莊子』, 「大宗師篇」.

『傳習錄』(下), 「黃省曾錄」, 274조목.

마르틴 졸리, 김동윤 옮김(1999), 『영상이미지 읽기』, 문예출판사, p.98.

플라톤 외, 아서 미·J. A. 해머튼 엮음, 정명진 옮김(2009), 『철학, 인간을 읽다』, 부글북스, p.307.

Bill Devall & George Sessions(1985), ed, *Deep Ecology*, Salt Lake City : Gibbs M. Smith Inc, pp.66-70.

M. Heidegger(1982), *Parmenides. Gesamtausgabe Bd. 54*, Frankfurt a.M. pp.206-207.

M. Heidegger(1984), Hölderlins Hymne “Der Ister”, *Gesamtausgabe Bd. 53*, Frankfurt a.M. p.140.

<초록>

‘비판과 공존’의 시학으로서의 생태시 교육방법

오정훈

본고에서는 생태시의 문학적성과 현실 참여성을 동시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연과 인간을 이원적으로 인식하는 사고로부터 배태된 환경오염과 인간소외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생태시를 매개로 수행되는 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인간’을 매개로 현실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수용의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수행하게 되며, 나아가 인식과 사고 체계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태도의 견지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대안으로서의 해결책을 타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생태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비판과 대안적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식 체계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핵심어】 생태시, 공존, 자연, 인간, 비판적 읽기, 대안적 읽기

<Abstract>

Teaching Ecological Poetry as Poetics of Critique and Coexistence

Oh, Jeong-hun

This essay focuses on the literary merit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real world in ecological poetry, and suggests ways to discuss them effectively in classrooms. In doing so, this study seeks to critic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uman alienation caused by dichotomous thinking about nature and humankind, thereby exploring the alternatives to improve human lifestyle. By learning about poetry with the exemplar works of ecological poetry, students will outgrow their passive attitude about the problems in the real world involving nature and humankind, and may experience shifts in their paradigms by engaging in active criticisms of the real world. Furthermore,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seek solutions and alternatives by exploring ideals by forming new conceptions of nature and humankind beyond criticism. Learning ecological poetry will not only stimulate students' aesthetic sensibilities, but may help to induce healthier, more positive changes in their attitudes and behavior by enabling them to think in critical, alternative ways.

[Key words] ecological poetry, coexistence, nature, humankind, critical reading, alternative reading